

북 핵실험 강행

■ 핵 보유국 된 北韓

“여당 비극은 分黨에서 시작”

“대북송금 특검 강행, 수많은 희생 냈다”

DJ, 경향신문 특별인터뷰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9일 옛 민주당 분당 사태와 관련, “그것(분당)에 여당의 비극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하자면 산토끼 잡으려다 집안 토끼 놓친 격”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경향신문에 실린 특별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노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자로서 민주당의 전통과 정당정책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분당은 표적 어준 사람들에게 승인받은 적이 없고 표적 어준 사람이 그렇게 바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열린우리당이건 민주당이건 비극은 결국 국민이 지원했던 일이 갈라서면서 시작됐다”며 “정당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생각해 야 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해서 우리 정당 정치가 상당히 후퇴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이 분당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 여권의 위기가 분당에서 비롯됐고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 DJ의 분당 관련 발언은 향후 범여권 정계계권 논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유당 이래 양당정치가 제대로 돼 왔는데 선거 때 표 얻었던 약속을 다 뒤집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게 갈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당사에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한 뒤 “(참여정부는) 핵정책을 계속한다 해놓고 대북송금 특검을 했고,



특검만 하더라도 현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해 수많은 희생을 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계획에 대해선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하는 것으로 북핵실험은 동북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 뒤 “미국은 북한에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계좌 폐쇄)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북한과 주고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며 “북한은 BDA 문제가 늦어진다고 해서 핵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특사문과 관련, “특사는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아는 장관급이나 국무총리급 사람이 가서 현 정권의 입장이 되게 해야 한다”며 “나는 민족 장래 등 기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방북하려 했는데 상황이 남도 북도 좋지 않아 못 가고 만 것”이라고 설명을 계속한다 해놓고 대북송금 특검을 했고,

NYT “8번째 핵클럽 가입…가장 위험한 국가”

북한은 이번 핵실험 성공으로 ‘핵클럽 국가’에 가입할 수 있을까. 군사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당장은 핵 보유국으로서 대접받기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당장 뉴욕 타임스는 8일 “북한은 첫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역사상 8번째로 핵보유국이 클럽에 가입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 물론 뉴욕 타임스의 이같은 보도는 실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과는 무관하다.

美 “핵 실험 했다고 핵클럽국 인정 안해”

국제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이 비록 핵실험을 성공한다 해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천명해 왔다 때문이다.

실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4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북한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나아가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든 자동적으로 핵클럽에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가 신용도 당장 영향 없을 것”

국제 신용평가사 밝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의 신용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P의 다카하라 오가와 국장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현 단계에선, 한국의 국가신용도와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의 행동, 특히 미국의 행동과 북한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S&P는 “한국의 경제와 전망,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방사능 낙진’이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오가와 국장은 말했다.

무디스도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용등급에 당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 뉴욕사무소의 토마스 번 부사장은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도가 제어되는(remain contained) 한 한국의 신용 판타멘탈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치사 싱가포르 사무소도 “국제사회의 대응방향을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의 신용등급은 이미 북한 리스크가 반영된 것”이라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닌게 아니라 지난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 실험을 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공인받으려 했지만 실패한 전례도 있다. 기존의 핵 보유국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핵클럽에 가입시키지 않고 오히려 경제 제재에 나섰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클럽 가입 문제도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적잖은 논란이 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핵 보유가 공인된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뿐이다. 지난 1970년 발효된 핵비확산조약(NPT)에서 인정하는 이른바 ‘핵클럽 국가’이다.

이 핵클럽 국가들은 지난 40여 년간 NPT 체제를 가동, 추가 핵 보유국이 등장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고, 핵 보유국이라는 특점적 지위를 이용해 외교적, 군사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유지해 왔다.

다만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핵실험까지 실시했으나 핵보유국으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아직까지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NPT 가입국은 아니지만 지난 3월 미국과 협정을 체결, 총 22기 원자로 중 8개의 군수용 원자로는 문제 삼지 않고 나머지 민수용 원자로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아래 두는 조건으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기술, 장비, 연료 등을 제공받기로 했다.

미국이 인도의 핵을 인정할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측면이 강했다. 파키스탄도 부시 행정부가 지난 9.11 테러 이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동참의 대가로 핵 보유에 대해 미국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상황이 됐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핵보유국 인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도 따지고 보면 이처럼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안정적인 핵 보유와 함께 핵 에너지 개발의 전기에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북한도 핵 실험 강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에 준하는 대접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속에 핵 실험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호의 읽는 日 국민들. 일본 오사카 시민들이 9일 오후 지하철역에서 북한 핵실험을 보도한 신문 호의를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첫 우주인 후보 1명은 여성 뚝”

과기부·행우연, 연말 남녀 2명 선발

올 연말 확정하는 우주인 후보 2명 중 1명을 여성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최종 우주인 후보 2명 중 1명을 여성으로 뽑는 방안을 놓고 우주인 선발위원회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현재 최종 후보 2명을

남녀 각 1명으로 선발한다는 원칙을 정해 공표하는 방안과 여성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 두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최초 우주인 후보 공모에 모두 3만 6천여명이 지원해 기본 서류검사에서(3.5km 달리기)와 필기시험(영어, 상식), 지원서류 평가 등을 거쳐 현재 500명으로 압축된 상태. 이 가운데 남성 435명, 여성은 65명이었다.

DJ ‘무거운 침묵’...상황 예의주시

내일 전남대 강연서 北 핵실험 관련 입장 표명할 듯

대북 핵정책의 창시자이자 집행자였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9일 북한의 전격적 핵실험 강행소식을 접하고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북핵실험으로 인해 대북 포용정책 기조가 6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은데다 최근 자신이 발신해온 ‘북미 직접 대화’의 메시지도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만데 대한 실망감과 당혹감이 반영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교동의 최경환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관련해 현재까지 특별한 언급이 없다”며 “뉴스를 시청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분위기를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장부서 치료 후 북핵 실험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10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광주 방문 일정을 당일 오후로 즉석에서 미뤘다는 후

문이다. 북핵 실험의 배경과 성격,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책, 북한의 대응태도 등 급변한 상황을 읽어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핵실험 후 조성될 한반도 정세변화를 진단한 뒤 11일로 예정된 전남대 강연을 통해 북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등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비서관은 “위낙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김 전 대통령은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전남대 강연을 통해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동교동 핵심사는 “현재 대북 포용정책 자체를 진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북핵 실험 실사라는 큰 문제가 터진 만큼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문제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수 아직까지 방수 고민하십니까? **직접 증사하세요!**

수구나 세비용으로 100% 완벽한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드림특수방수피는?

- 1. 방수력 우수 (30% 방수력 향상)
- 2. 내구성 우수 (10년 이상)
- 3. 친환경 (환경오염 최소화)
- 4. 시공 간편 (전문인력 필요 없음)

주요 제품

- 방수 페인트
- 방수 코팅제
- 방수 접착제
- 방수 도료

문의: 080-362-7788

SONY

DSLR의 새로운 세계

최고의 성능, 최고의 이미지

1. 비네파 렌즈

2. X-Engine II 엔진

3. AF-AIAF

4. iAFL

5. iAFD

6. iAFD

7. iAFD

8. iAFD

9. iAFD

10. iAFD

문의: 080-522-3000